

## 주의 뜻과 결이 맞으면 언제든 회복된다

(사도행전 18:1-11)

바울은 본래 1차 선교지들을 다시 방문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나 환상을 통하여 바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낯선 지역으로 그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 하셨습니다. 본래 바울은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성향의 사람이었기에, 선교여행 내내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고 틀어질 때마다 내면에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 내어 조각품이 탄생하듯이, 우리 삶의 모난 부분들이 고난을 통해 깎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허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테네를 거쳐 마침내 거대한 항구도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으며,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는 유대인들의 거센 폭동 때문에 한밤중에 다급하게 야반도주를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마땅한 거처도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던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성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은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조롱과 비웃음뿐이어서 결국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신실한 동역자인 누가와 디모데, 실라도 곁에 없이 온전히 홀로 아테네와 고린도를 거쳐오면서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정서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교사로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성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났고,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깊은 영적 무력감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의 영적, 도덕적 분위기는 바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대 그리스 최고의 무역도시로서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반면 온갖 향락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극심한 음란함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에는 성적인 방식의 제사를 돕는 여사제만 해도 천 명이 넘게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은 쾌락과 방탕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는 평범한 일반인조차 영혼을 바르게 지키며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무모해 보이는 크나큰 난관이었습니다. 게다가 낯선 항구도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물가로 인해 바울은 당장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처지마저 궁핍해지는 삼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가족으로 천막을 만드는 업체를 찾아가 노동자로 취직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처럼 상황이 나빠지고 심신이 약해지면 환경에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결을 같이 했습니다.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순간마다 방자하게 불평을 쏟아내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에 떨지언정 입술로 원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바울이 영육 간에 가장 약해져서 떨고 있을 바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모든 기반을 잃고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

다. 이 부부는 바울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후에 교회와 바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고, 모든 이방 교회들이 감사를 표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로마에서 쫓겨난 비참한 부부와 사방에서 매를 맞고 떠돌아다니는 선교사의 만남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초라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대단한 유명 인사처럼 도처에서 화려하게 영접을 받고 사역의 성공 가도만을 달렸더라면,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장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에서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적극적인 약함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낮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다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타인이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정확히 결을 같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과 낮아짐을 통해 다른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줄 알았던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싹이 되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삶의 결을 맞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마침내 나 자신이 회복되는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